

## 예술인 열전 | 2014 당진 올해의 작가전 첫 당선자 / 서양화가 이상옥

# 비어냄으로써 충만해지는 이유



꽃 피기 전 봄산처럼 / 꽃 핀 봄산처럼 / 꽃 지는 봄산처럼 / 꽃 진 봄산처럼 / 나도 누군가의 가슴 / 한번 울렁여 보았으면

-함민복, '마흔번째 봄'

완연한 봄이다. 이상옥 작가는 봄을 보낼 적마다 가슴 언저리가 빠근하고 간질거린다. 연두색 물감에 흰색을 얼마쯤 섞어야 저 빛깔이 나올까. 봄이 오는 3월부터 절정에 이르는 5월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에 눈을 땔 수가 없다. 색을 다루는 화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래도록 그녀를 보아온 이들이라면 알 것이다. 그녀가 '본능에 가까운 사람'이라 그러다는 걸. 작가의 작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누드 크로키와 더불어 그녀의 대표작인 <보내는 봄>이 그렇다.

"그에게 그림은 끊임없이 소생하는 봄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성숙한 시각을 통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소극적인 내태함이 아니라 진정한 희생이고 용기인 것을 배운다."(윤근아 큐레이터)

### '올해의 작가전'이 갖는 의미

이팝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핀 5월 초, 느닷없이 쏟아진 봄비 속에서 작가를 만났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당진문화재단 선정 2014 올해의 작가전이었던 <보내는 봄>에서 시작됐다.

<보내는 봄>은 봄을 만끽하는 충만함, 그 자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꽃,

노란 개나리 넝쿨, 봄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배꽃잎이 캔버스에 피었다. 아니 씩이 돌고 꽃이 피는 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오롯이 즐기고 있는 작가의 마음이 피어있다. '봄'보다 더 '봄'같은 것,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때문일까. "그 흔한 풍경을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 놓는다. 미묘한 색조를 통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드러냄으로써 실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성의 시계를 보게 되는 것이다"(신항섭 미술평론가)

2014년 당진문화재단 선정 첫 번째 '올해의 작가전'에 초대된 <보내는 봄> 작품들은 당진의 사계에 관한 이야기다.

이상옥 작가는 '올해의 작가전' 첫 당선자라는 의미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었다. 전업작가로 소도시에 살면서 전시회를 연다는 건 작품을 완성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작업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당진에서 개인전은 고사하고

그림전이라도 한번 하려면 그림 걸 공간이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문예의전당이 생기면서 전시공간은 해결됐지만 도록 제작부터 그림을 전시하는 것까지 모두 작가가 직접 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올해의 작가전' 때는 달랐어요. 큐레이터가 도록부터 전시, 기획까지 모든 걸 함께 해줬죠. '아 내가 진짜 작가가 되었구나!' 새삼스럽게 흥분까지 될 정도였어요. 당진에서 작품 활동하는 게 뿌듯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작가는 작품을 만들고 큐레이터가 전시회를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당진에서는 처음 겪는, 정말 굉장한 일이었어요."

왜 아니겠는가. 당진문화의전당 전시관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진의 유일한 전시 공간이었다. 거기에 여전히 부족한 자원 등의 이유로 전시 큐레이터가 상근하지 않는다. 당진문화재단은 '올해의 작가전'과 '이 시대의 작가전'에 한해 상시적으로 큐레이

터를 고용하고 있다. 이상옥 작가는 지역의 전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작가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더불어 전문 큐레이터의 고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당진 문화의 획을 그은 사건, 누드크로키전

이제는 어딜 가나 '당진택'이라는 애칭이 따라 붙는다는 이상옥 작가는 사실 대구 출신이다. 교직에 몸담았던 친정아버지 덕에 울릉도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유난히 색에 민감한 화가적 기질은 어릴 때부터 드러났다. 소풍날이면 도시락 한가득 예쁜 풀들을 담아오곤 했다.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한 건 미술학도였던 대학시절부터다. 대학교 졸업작품전에서 '윤회(輪回)'를 주제로 연꽃 시리즈를 발표했다.

"한참 작품활동이 왕성한 20대 초에 어머

니가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거듭될수록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깊어지지만 갔죠. 그 당시 모교 근처에 연꽃 밭이 많았는데, 어느 날 문득 '엄마도 연꽃으로 다시 태어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연꽃 그림은 중년이 된 지금까지도 종종 작가의 캔버스 위에 오른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리움은 여전히 남았다. 그렇게 연꽃을 그리는 일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진 남자와 결혼해 20년 넘게 당진에 살고 있는 이상옥 작가. 이제는 모든 전시회 방명록에 '당진 이상옥'이라고 남길 정도로 자타공인 '당진 사람'이 다 되었지만 처음부터 당진과 작가가 살았던 건 아니다. 당진출신인 아니어서 느끼는 소외감에 지역을 걸돌았다. 당진에서는 누드 모델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서울을 오가며 누드크로키를 그렸다. 그 결과가 바로 2005년 당진에 큰 화제를 일으켰던 '누드 크로키'다. 혹자는 당진 전시 문화 발전에 획을 그었다고도 표현한다.

"당진에서 첫 전시회로 누드 크로키전을 열고 전시장에서 공개 누드 크로키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선입견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시회가 열리고 난 뒤, 호평을 많이 받았죠."

이 작가는 "에스키스(esquisse)와 인간의 신체탐구, 인물화는 작가의 기본"이라 말한다. 그런 이유로 여전히 그녀의 작업실에는 연필로 혹은 붓으로 그려놓은 밑그림들과 누드 크로키, 인물화가 그려진 스케치북이 곳곳에 놓여 있다.

### △경력

- 대구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개인전 15회(초대전 및 단체전 200여회)

### △단체

- 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 부회장
- 충남미술대전/안경미술대전/서해미술대전 초대작가
- 충남건축물심의위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 아름다운 동행전 운영위원장
- 롯데문화센터 강사
- 이상옥 화실 운영

### △역임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외 각종 심사 및 운영위원



▶ 2면으로 이어짐



| 사진으로 보는 세상

2015 당진 올해의 사진작가 송영우



덕유산의 겨울

\*당진 올해의 문학인 출판사업 당선작가의 시선

시 한편 | 박미영

치마 백서

치마 속이 궁금하다  
늦은 사월 자목련 나무에는  
홀러덩 홀러덩 다 벗어 던진 속치마가  
젖은 빨래처럼 걸려있고  
떨어진 빨래들은 뜯어진 벽서처럼 나뒹군다

한 때는 연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고운 연서였으리라  
데이트 할 때만 꺼내 입는 짧은 치마는  
그 자체로써 사랑에 대한 고백서고 증명서가 아닌가  
꽃잎 원피스자락 팔랑거리며 다가오는 봄의 유혹을  
그 누가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모든 남자는 걸어 다니는 봄에 약하다  
치맛단 흔들릴 때마다 드러나는 두 다리가  
신의 출석요구서인 듯 안절부절 못한다  
흠뻑흠뻑 흠쳐보고는 금서를 읽다 들킨 죄인인양  
스스로 치마끈의 오랏줄에 엮인다

지금도 치마 밑에서는 끊임없이 기밀문서가 전송 중이다  
어떻게든 해독해보려고 나무 아래마다 서성이는 남자가 있다



박미영  
서경초등학교 교사  
「시와 시학」 신인상, 원종린문학상, 충남문학상,  
제10회 공무원문예대진 최우수 국무총리상수상  
〈저서〉 시집 「신발□」 「해나루 당진□□」 「별의 내력」 등

수필 한편 | 이종미

그 여자 짝이기

세월 앞에  
늪지 않을 재간이 어디 있을까  
십년 넘게 수더분한 아낙 같던 압력술이  
파업을 했다.  
엄청난 호가지만  
빠대 굵은 것을 골라  
집으로 데려왔다  
어두컴컴한 새벽  
처음 듣는 목소리의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나긋나긋한 기운찬 목소리로  
백미, 현미, 잡곡 등  
무슨 밥을 지을 거냐고 조곤조곤 물었다  
고장 난 카세트처럼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죽기 직전의 그녀는 더더욱 발악했다

숨탄것들에게  
두 번의 삶이 허락된다면 아마도  
생명의 소중함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삶에 이분법을 적용하여  
귀천과 비천으로 나눈다 해도  
생명은 그 자체로 경계 지을 수 없다  
그 여자를 짝여 버렸다  
그녀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  
만물은 저마다의 생명이 존재한다  
그녀의 목소리도 사람의 소리라고  
웬지 모를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의 양심일까  
언제 다시 그녀를 살려야 겠다

수필 '그 여자 짝이기' 중에서



이종미  
당진수필문학회장, 나루문학편집국장, 한국문인협회 정보화위원,  
당진문화예술학교 문예창작강사, 송악초 교사  
연구논문 및 저서 「오뉘네기 전설」, 수필집 〈그 여자 짝이기〉

발간사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문화재단 소식지」 발간을 17만 시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당진문화재단은 2013년 3월에 출범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 욕구 해소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 형성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살찌우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폭격과 감동이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선보이고자 공연·전시·강연을 진행해 왔으며, 지역의 문화예술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문화복지 실현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당진문화재단 소식지 「문화가 ISSUE」 발간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사업과 문예의 전당 주요공연 일정, 전시 정보 등을 제공하는 메신저 역할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서비스 확대와 우리 시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우리 시가 문화예술 도시 당진의 정체성이 바로 서고, 지역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되어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진문화재단 소식지 「문화가 ISSUE」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식지 발간에 애써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은 상상, 미래, 희망을 표현”

▶1면에서 이어짐

흔한 풍경을 한국적 정서로 재해석

이후 작가는 꽤 오랜 시간 당진을 자신의 캔버스에 담고 있다. 2006년 장애경 수채화 작가와 일주일에 한 번씩 야외스케치를 다니며 그린 〈당진의 사계〉, 문 닫은 과수원 한 복판에 자리한 작업실에서 봄마다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배꽃을 그린 2009 〈보내는 봄〉 등이 결과물이다. 일련의 작품들이 ‘당진의 자연’이라는 줄기로 엮여진다면, 가장 최근 작품인 〈시간의 저편〉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줄기는 ‘여백’이다.

〈시간의 저편〉 시리즈는 담쟁이를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담쟁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했다. 척박한 땅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는 담쟁이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인간의 모습을 담았다.

“수덕사에 가면 바위에 고 이응노 화백이 생전에 남긴 것으로 알려진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 바위 한 모퉁이를 담쟁이가 타고 오르려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공존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떠올랐어요”

〈시간의 저편〉에서 고 이응노 화백의 글자 디자인은 과거를, 담쟁이는 현재를, 여백은 미래를 이야기 하고 있다.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거다. 작품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또 어디까지나 관객의 몫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작가의 작품을 관통하는 ‘여백’의 의미는 더 커진다. 〈시간의 저편〉에서의 ‘여백’은 두 번의 〈보내는 봄〉 시리즈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작가의 작품 전반에 걸쳐 담겨있는 ‘한국적인 정서’를 보여준다. 동양미학의 여백개념과 유사하다. 비어냄으로써 충만해지는 것이다. 감상자를 위한 상상의 여지를 마련해두겠다는 작가의 의도도 담겨있다.

“여백이라는 것이 상상, 미래, 희망 같은

것을 모두 담고 있어요. 감상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도 되고요.”

하얀 꽃 몇 송이와 활달리는 꽃 잎.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 여백만으로도 우리는 작가가 봄을 만끽하며 보낸 배나무 발 한가운데 서있게 되는 황홀함을 공유할 수 있는 있게 된다.

그림 그리기 본연의 맛 즐기는 안식년

올해는 전시회 계획을 잡지 않고 나름의 안식년을 갖고 있다는 작가. 몇 해째 연이은 개인전과 초대전 등으로 휴식이 필요했다. 현대 ‘쉬겠다’ 마음먹었더니 그림 그리는 것이 더 즐거워졌다. 요즘 작가는 매일 눈에 띄는 것,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린다. 마감시한도 딱히 정해진 주제도 없으니 붓을 든 손이 더욱 가벼워졌다. 이런 저런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야외스케치도 자주 나간다. 작업실에 오는 길, 들꽃을 꺾어다 종일 그 꽃만 그리기도 한다.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 초상화를 그려 작업실 한편에 걸어두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보이는 대로 그리니 너무 좋아요. 여유가 생기기 그림을 그리는 본연의 맛을 더 즐기게 된 것 같아요. 재미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린 그림은 감상자들에게도 오래도록 사랑받는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림만 그려요. 무엇이든 그렇죠”

이제와 돌아보니 작가는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그려왔다. 따뜻한 마음. 내 마음이 머무는 곳. 작가에게 자아 성찰이란 선행되어야 하며 끝없이 지속되는 작업의 일부인 것이다. 앞으로도 이상욱 작가는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 사무치게 마음에 남는 것을 캔버스에 올릴 것이다. 찬란한 이 봄 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빼근하고 간질이는 것. 또 무엇이 그녀의 마음에 들어와 어떠한 색과 형태로 캔버스에 오를지 기대된다.

글 유현선 / 사진 김형태



당진문화재단 주요사업소개

# 당진문화동아리주간 생활문화예술제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동아리들의 축제 지속적인 예술활동 독려와 역량 강화 교육까지 6월22일~25일, 2017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과거에는 대학전공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문화예술활동이 현재는 비전공 예술가인 아마추어들이 주체로 참여하면서 폭넓은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퇴근 후 저녁시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혹은 퇴직 후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한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문화를 즐기는 시대다. 이러한 시대에 지역의 생활문화교육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도시와 비교해 문화 기반과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같은 문화를 즐기는 이들이 모여 동아리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

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창작활동이 가능한 공간과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무대(발표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진문화동아리주간 '생활문화예술제'는 당진 문화동아리들의 보배 같은 존재라 할 만하다.

### 당진문화재단 대표 문화사업

2014년 당진문화동아리 페스티벌로 시작한 문화동아리주간사업이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당진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 1주일간을 문화동아리주간으로 선포하고 생활문화예술제를 연다. 말 그대로 일주일동안 당진 문화동아리들

의 축제를 여는 것이다. 당진문화동아리주간사업은 지역 내에서 자생한 문화동아리를 공개 모집해 내실 있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펼치고 활동무대를 넓힐 수 있도록 기획된 당진문화재단의 대표 문화예술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참여단체 공개모집 결과 총 48개 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매년 문화동아리들의 참여율과 함께 시민들의 호응이 더해지면서 올해는 예산도 증액되었다.

### 동아리와 문화재단이 함께 추진단 운영

당진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동아리들이 공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진문화재단은 문화동아리와 함께 당진문화동아리 주간사업 추진위원회(공동대표 문옥배, 이동근)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함께 운영한다. 참가단체의 모집일정부터 선정,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추진단 회의를 거쳐 진행한다. 동아리들이 직접 축제의 기획부

터 공연까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생활문화예술제의 의미는 더 커진다.

### 동아리 역량강화사업으로 재교육까지

특히 주목할 만 한 것이 있다. 바로 당진문화동아리 주간사업과 연계해 운영되는 당진문화동아리 역량강화사업이다. 당진문화재단은 문화동아리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주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문화동아리의 역량강화를 위해 분야별로 차별화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동아리 주간사업 참여 동아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배달강좌 형식으로 지원한다. 다시 말해 축제 직전에 동아리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아리 대부분이 아마추어라는 점에서 재교육의 기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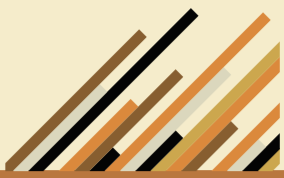
공연, 전시, 체험 다양한 문화예술 한자리에

추진단은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당진문화동아리주간으로 선포하고, 당진문화예의전당 일대에서 2017 '생활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생활문화예술제는 문화동아리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예술의 장으로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2일 오후 6시40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예술제 기간 동안 야외무대와 소공연장에서는 난타, 직장인밴드, 응원단, 오키리나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동아리가 무대에 오른다. 전시관에서는 캘리그래피, 서양화, 서각, 도예 등의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야외무대 주변으로 마련되는 체험공간에서는 점핑클레이, 캘리그래피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예술제 프로그램은 당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 *it* 수다 | 당진문화예술학교 현재와 미래

# 당진시민 생활문화의 중심, 당진문화예술학교

문화예술 교육부터 동아리창단, 활동 지원까지  
시민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졸업 제도, 강사로 증액, 프로그램 다양화 등 과제도 남아

» 2011년 7월, 당진문화예술학교가 개관했다. 당진문화예술학교는 설립 이전부터 다양한 논점을 주제로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다. 운영주체부터 프로그램의 성격을 비롯해 정체성 논란까지 이어지며 개관 이후에도 최근까지 각종 포럼과 토론회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오래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토론을 통해 문화예술학교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 왔다.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려 했던 지역사회의 지난한 노력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당진문화재단의 위탁 운영과 더불어 당진문화예술학교의 안정화를 이끌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진의 다양한 문화예술 이슈를 다루게 될 '기획 it 수다' 첫 주제로 당진문화예술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선정했다. 당진문화재단의 단독 위탁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불어 지역사회 문화예술가, 시민들의 의견도 들었다.



논란의 중심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으로  
당진문화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는 2010년 2월 건립 기공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2011년 7월, 완공과 함께 개관한 예술학교는 운영 주체를 놓고 논란이 되었다. 당시 당진군은 직영으로 가닥을 잡고 '당진군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이후 당진문화재단이 출범했다. 2013년 5월, 당진시는 당진문화재단과 기존에 실질적인 예술학교 운영을 맡아왔던 당진문화원 예술학교 공동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공동위탁에 따른 역할분담과 책임소재 모호에 대한 우려 가운데, 두 기관의 공동 운영이 2년간 지속되었다.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언론과 포럼 등을 통해 프로그램과 운영 주체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토론이 이어졌다. 2015년 당진시는 문화예술학교 민간 위탁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기관 적격 심사를 열었다. 이를 통해 당진문화재단이 최종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를 시작으로 5년간 당진문화재단이 예술학교 운영을 맡게

되었다.  
현재 예술학교는 다른 중소도시 중에서도 앞서나가는 문화예술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일도 늘고 있다.  
당진문화재단은 단독 위탁 운영이 결정되었던 지난해 지역언론을 통해 "문화예술학교가 문화예술 강좌만을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사업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나는 내실 있는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당진시대 1095호 참고).  
지역문화예술의 '교육센터'이자 '창작지원센터'  
예술학교의 대표 사업은 시민문예아카데미 운영이다. 문화예술학교라는 명칭에 걸맞게 당진시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예술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년 11월에 진행되는 수강생 발표회와 창작공간지원사업, 문화기획 인력양성, 예술강사역량강화 워크숍, 기타 국비사업 등이 실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개요라 할 수 있다.  
당진문화재단은 예술학교를 '시민 문

화예술 교육 센터'이자 '시민 문화예술 교육 창작지원센터'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예술학교가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을 교육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는 의미다.  
문옥배 교장은 "실제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학교로서의 역할과 함께 시민들 스스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방면에서 지원한다"며 "명칭으로 재해석 한다면 예술학교는 시민문화예술 '교육센터'이자 '창작지원센터'라고 말했다.  
시민문예아카데미와 더불어 창작공간지원사업인 '별별동지', 문화기획 인력양성, 예술강사역량강화 워크숍이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복지정책에서 거론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당진문화재단의 모토 이면서 동시에 예술학교의 방향이기도 하다. 우리는 '교육부터 창단과 활동까지'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의 모두를 지원한다."  
예술학교의 시민문예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한 동아리

창단, 예술단체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인 '별별동지'로 지속적인 활동 공간 지원, 당진문화동아리주간사업을 통한 발표 무대 지원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이를 대변한다. 그야말로 시민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주고 있는 셈이다.  
문 교장은 "예술학교에서 교육이 끝나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씨앗이 되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업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은 당진의 전반적인 문화정책을 다루는 당진문화재단이 예술학교의 운영 주체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성인과 학생, 시민과 전문가를 위한 교육  
예술학교는 현재 2017년 시민문예아카데미로 총 36개 강좌를 운영 중이다. 생활문화 활성화는 예술학교 사업의 주요 부분이다.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 활동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

기반의 문화예술진흥을 이루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더불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강좌에 대한 만족도와 희망 개설 강좌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당진문화재단은 시민문예 아카데미가 단순한 실기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들 스스로 강의 이수 후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거나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이 바로 수강생 발표회 '돋움'과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 '별별동지' 등이다.  
예술학교는 일반강의실 외에 발레바가 설치되어 있는 무용연습실, 피아노가 있는 음악교실, 이젤이 마련된 미술실 같은 특성화 강의실을 확보하고 있다. 시청각 시설을 갖춘 세미나실과 회의실, 무대와 계단식 관객석으로 꾸며진 100명 수용 규모의 공연장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은 아카데미의 강의실 외에도 창작공간 지원사업의 형태로 활용된다.  
예술단체 스튜디오 지원사업 '별별동지'는 기존의 지역예술단체에게 안정적







인 작업과 연습공간을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문화동아리의 지원을 통해 시민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진시킨다.

대상으로 나눠본  
당진문화재단 교육방향

1. 시민 대상 생활문화예술교육
2.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3. 예술강사 대상 전문가 양성 교육
4. 초, 중학생 대상 영재 발굴 교육

예술학교가 설립되기 전부터 시작된 '정체성 논란'은 '학교'라는 명칭에서 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민들에게 기존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강좌에서 한 차원 격상된 문화교육을 기대하게 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욕구는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과 '예술강사역량강화 워크숍', '예술 영재 육성 아카데미'로 실현되고 있다.

매년 1박2일로 진행되는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은 지역 내 활동 중인 문화예술기획자 및 예비문화기획자를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 문화기획방법부터 홍보마케팅 전략, 공모사업 정보와 참가자 네트워킹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예술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은 지역 내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강의력의 질적 향상 모색을 위한 아카데미로 진행된다. 지역에서 예술강사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계획 중인 예술가들에게 자기개발과 문화예술 교육법 정보제공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 영재 육성 아카데미는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재력 있는 예술

영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음악과 무용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초, 중학생을 선발해 교수급 강사진의 1대 1 레슨과 현장학습, 연습실 제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학교의 주요 사업을 교육 대상으로 다시 분류하면 1. 일반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2.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3. 전문예술 강사 양성 교육 4. 영재 발굴 교육으로 정리된다.

예산 증액 통한 강좌 다양화,  
졸업제도 제안

오래도록 지역의 주요 아젠다였던 만큼 예술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특히 지역 내 문화예술계에서는 당진문화재단이 단독 위탁 운영하는 동안 비교적 안정화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모색과 다양한 장르의 강좌 개발, 예산 증대를 통한 인력 강화 등을 앞으로

남은 과제로 뽑았다.

김광철 세한대 교수는 "지역의 학교 또는 학원과 충돌 되지 않으면서도 문화예술학교만의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아마추어 시민들을 위한 초보 단계의 강좌부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수준 향상을 원하는 시민을 위한 고급과정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대학과 연계한 학점은행과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연구"등을 제안했다.

조재형 당진문화연대 회장은 "초창기에는 예술학교에서 전문 예술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술학교의 기능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의 저변 확대와 그보다 좀 더 수준 있는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위한 인문학적 차원의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강사와 외부강사의

균형적인 고용과 기초, 심화반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이수하면 졸업한다거나 심화반으로 진출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 더 많은 시민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사도 수강생도 순환되어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예술학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예산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 '강사비 증액을 통한 우수 강사진 고용', '전업작가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의견이 나왔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해  
체계적인 성장 준비

당진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 당진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가 용역을 맡았다.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시민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용자 확대, 반복 수강을 통한 수강생 정체 문제 보안을 위한 수강생 수료 제도 신설, 당진시 예술동아리 플랫폼 마련, 최종 수혜자 계층 확대를 위한 기획 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예술학교 기획, 사회예술 교육 기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제안되었다. 당진문화재단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당진문화예술학교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 문화관광과 신현만 팀장은 "당진시에서는 당진문화재단이 운영을 맡은 뒤로는 대체로 안정을 찾아가며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강료 수입에 준하는 만큼 예산을 더 확보해 지원하는 방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단人 | 당진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김태희 씨

# “당진은 문화기획자로 일하는 보람이 큰 도시”



### 당진문화동아리주간사업, 기획공연 담당 ‘미모 되고, 능력 되는’ 당진문화재단의 인재

“당진은 문화기획자, 문화행정이 일하는 보람이 큰 도시예요.” 김태희 씨는 당진문화재단 문화사업팀에서 3년째 근무 중이다. 근무 첫 해는 문화사업팀 전반 업무를 서포트하며 재단 일을 익혔다. 무엇보다 당진과 당진문화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었다. 처음에는 소도시 지역문화에 적응키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광역시에서 나고 자라 20대를 보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막상 당진에 익숙해지고 나니, 문화기획자로 일하는 보람을 더 자주 느끼게 됐다.

“소도시여서 그렇기도 하고 문화



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좋은 공연, 좋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피드백이 원활해요. 공연을 보고 나온 관객들이 ‘정말 좋았다’, ‘좋은 공연 마련해줘 고맙다’는 인사도 종종 하시고요. 기획자로서 그런 인사만큼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김 씨는 “그런 지역 특성을 기획자들이 적극 활용하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더 극대화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녀는 대전에서 나고 자랐다. 대학은 물론, 졸업 후 20대를 대전에서 보냈다.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예술 행정에 더 관심이 많았다. 행정 경험을 쌓겠다는 생각으로 첫 직장은 구청을 선택했다. 행정 실무를 익히면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예술경영학을 전공해 졸업과 함께 문화재단 입사시험을 준비했다. 요즘 2, 30대가 그렇듯 김 씨의 20대도 치열하고 분주했다. 그렇게 20대 후반, 대전문화

재단으로 이직을 성공했고 3년 간 문화예술교육지원 업무를 맡았다.

“대전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이다 보니 직접 사업보다 지원업무가 주를 이뤘어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총괄 담당하며 지원 단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이 주 업무였죠. 특히 꿈다락 사업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문화교육을 통한 변화와 성장이 눈에 보여 보람도 느끼고 즐겁게 일했던 것 같아요.”

김 씨는 당시의 경험과 노하우로 당진문화재단 근무 첫 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공모해 국비를 지원받았다. 그녀가 당진문화재단에서 ‘미모 되고, 능력 되는 인재’로 손꼽히는 이유다.

올해 그녀는 당진문화재단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당진문화동아리 주간사업과 몇몇 기획공연을 맡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난 3월 화이트데이에 달콤한 피아노연주회로 인기를 얻은 ‘Romantic pianism weekend’이다.

“화이트데이 선물이라는 소재로 열리는 공연만큼 무언가 더 재미있고 새롭게 하고 싶었어요. 고민하던 중에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무대를 꾸며보자고 의기투합하게 됐어요. 무대소품 대여점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다가 천을 사서 직접 무대를 장식하게 됐죠.”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무대연출은 공연을 더욱 황홀하고 달콤하게 만들어주었다. 이벤트로 진행한 사랑부케도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태희 씨는 “문화라는 건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공연장에 오기까지 힘들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모두가 즐겁게 문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언뜻 들으면 문화기획자들의 관에 박힌 듯한 말 같지만 그녀의 ‘진심’이다.

“문예의전당 공연도 그렇고 문화예술학교 강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소도시와 비교해 보면 정말 대단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곳이 당진이거든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자기 삶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어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요.(웃음) 좋은 사업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나고 싶습니다 | 문화회원 박미숙(읍내동 거주, 47, 회사원) 씨

# “당진에서 오페라 공연! 예전엔 꿈도 못 꿴죠!”

### “주변 도시보다 월등한 공연문화, 자랑스러워” 2년5개월간, 당진문예의전당 공연 41회 관람

“공연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요.”

인터뷰가 처음이 아닌 것 같다는 칭찬에 돌아온 박미숙 씨의 수줍은 대답.

41회, 2년 5개월 동안 박 씨가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공연을 관람한 횟수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매달 14회 공연을 관람한 셈이다. 박미숙 씨는 당진시민 중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공연을 관람한 문화회원이다.

“1, 2월은 공연이 별로 없어요. 비수기죠. 그러면 제 기분도 별로예요. 반면에 연말이면 예매해 둔 공연이 한달에 서너개씩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제 기분도 최고죠. 공연 보러 갈 생각에 늘 들떠 있어요.”

공연을 보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라는 박미숙 씨. 그렇다고 박 씨가 공연 전공자이거나 악기 연

주자나면, 전혀 아니다. 안면도가 고향인 그녀는 결혼해 당진에 정착하고서도 한동안은 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온 여느 평범한 주부였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 육아에 숨통이 트 무렵에도 퇴근 시간이 늦은 직장 덕분에 이렇다할만한 취미생활 없이 살았다. 그러던 즈음 당진문예의전당과 도보 5분 거리로 이사를 오게 됐다. 때 마침 옮긴 새 직장도 퇴근 시간이 오후 6시로 당겨졌다. 6년 전의 일이다. 그때부터 박 씨는 항상 문예의전당에 자신의 레이더망을 켜두었다. 공연이라 하면 편식하지 않고 즐겼다. 첫 몇 년은 아쉬움도 있었다. 프로그램이 클래식과 합창, 7080 대중가요 공연 정도여서 선택의 폭이 좁았다. 관객들의 매너도 아쉬웠다. 공연 중 어린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이 잦았다. 헌데 해가

거듭될수록 공연의 질도 관객들의 공연 관람 태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아마 당진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인 것 같아요. 우선 공연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클래식 연주회 위주였는데 탭댄스, 샹송, 플라멩고, 발레처럼 당진에서 보기 힘들었던 공연이 연이어 무대에 오르더라고요. 재즈 공연도 이제는 1년에 한두 번씩 볼 수 있어요. 오페라도 했어요. 예전엔 꿈도 못 꿴죠. 그러니 더 기대가 돼요. 다음 공연은 어떤 연주자가 무대에 설까, 어떤 새로운 공연을 볼 수 있을까.”

박미숙 씨는 “시가 된 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당진이 이웃 다른 도시들에 비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당진시민으로서 기쁘고 관객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라



고 말했다. 공연을 꾸준히 관람하다보니 처음에는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피아노 독주회도 이제는 휴식시

간 없이 두 시간 가까운 시간을 거뜬히 즐기며 관람할 수 있게 됐다는 박미숙 씨.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으로는 퓨전 퍼커션밴

드 폴리의 공연을 꼽았다.

“제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연이 끝나고 밴드를 찾아가 함께 사진을 찍자고까지 했어요. 공연 촬영도 허가해줘서 휴대폰으로 찍어두고 요즘에도 종종 보는데, 볼 때마다 정말 재미있고 좋아요.”

한편 대관공연의 경우 예매를 별도의 예매사이트에서 해야 하는 것과 기획공연에 비해 공연정보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뮤지컬이나 발레, 오페라처럼 대도시가 아니면 보기 힘든 공연들도 당진에서 자주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문화회원이란?**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운영하는 회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입비와 연회비에 따라 공연 관람시 다양한 할인혜택과 공연 및 전시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입비는 1년 1만원, 2년 1만5천원, 3년 2만원이며 회원카드를 발급해준다. 문화회원 관련 문의는 041-350-2911.





## 당진의 미술 전시 공간

# 나는 오늘 그림 보러 간다

### 〈아미미술관〉부터 갤러리 카페까지 규모도 컨셉도 다양한 지역 미술 전시 공간

최근 당진에 미술 전시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사화는 '미술 작품은 어렵다'는 선입견으로 미술관의 문턱이 여전히 높지만 하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작가와 관객이 더 자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당진의 변화는 반갑기만 하다. 한편 이 같은 변화는 그림을 보고 즐기는 데에서 나아가 직접 배우고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문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나서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당진의 몇몇 갤러리 카페는 지역의 문화 사랑방을 자처하기도 한다.

국내의 유명 현대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미술관부터 일상 속 사진과 이야기를 담아낸 지역인사의 SNS 사진전을 여는 갤러리 카페까지, 규모도, 컨셉도 다양하다. 이번 여행은 다양한 당진의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아미미술관



아미미술관

#### ‘인생샷’ 명소로 소문난 〈아미미술관〉 국내외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 발굴, 전시

2011년 문을 연 〈아미미술관〉은 이미 ‘전국구’다. ‘사진 좀 찍는다’하는 유명 여행 블로그들 사이에서 〈아미미술관〉은 필수 여행 코스가 되었다. 논과 밭,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 미술관은 오롯이 방문자들의 입소문으로 유명세를 탔다. 무엇보다 사시사철, 피고 지는 꽃들과 나무, 자연과 어우러진 미술관의 입지가 큰 몫을 했다. 서양화가 박기호 관장과 그의 아내이자 설치미술가인 구현숙 부부는 폐교를 미술관으로 꾸미면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많은 공을 들였다. 덕분에 관람객들은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장미가 만발하는 미술보다 더 예술적인 자연 속에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옛 교실과 복도를 그대로 살린 전시관도 특별하다. 나무로 만든 마룻바닥도, 창틀도 옛 것을 그대로 살렸다. 창으로 스며드는 자연광이 전시관을 한층 더 멋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보니, 〈아미미술관〉의 안과 밖 모두 자연 그대로를 살린 셈이다.

각종 기획전을 비롯한 전시 프로그램도 외관 못지않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주로 전시되는데, 회화뿐만 아니라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해설이 있는 미술관’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현대미술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전시 중인 [정



다원갤러리



다원갤러리

민기 展]과 [2017 아미의 작가들 展]은 6월30일까지 전시된다.

〈아미미술관〉에서 ‘사진 찍는 재미’와 ‘그림 보는 즐거움’을 만끽했다면, 미술관 뒤편에 자리한 [지베르니]에서 ‘차 한 잔 즐기는 여유로움’도 누리보시길.

특히 박기호 관장 부부가 세계 오지를 여행하며 모아온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에 띈다.

당진 유일의 화랑, 〈다원갤러리〉 갤러리 옆 카페에서 문화 공연도 진행

지난해 여름 개관한 〈다원갤러리〉는 현재 당진의 유일한 화랑이다. 당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서예가 김용남 관장이 자신의 작업실을 새롭게 꾸리면서 함께 문을 열게 되었다.

2층과 3층에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2층 메인 전시관에는 모던한 분위기의 카페 〈INTRO〉가 자리하고 있다. 갤러리와 카페의 입구를 달리하는 동시에,

연결 통로를 풀딩 도어로 제작해 전시 성격과 작가의 선호도에 따라 분리 혹은 개방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다원갤러리〉는 이러한 공간의 특징을 살려 전시회 오프닝을 공연, 다도시연회, 시낭송 등으로 기획하기도 했다.

현재 〈다원갤러리〉에서는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展]이 전시 중이다. 충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 전시는 5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이후에는 장철석 작가의 크로키 전시와 국내 작가와 네팔 작가들을 초대하는 [히말라야를 그리다 展]이 예정되어 있다.

#### 바다, 커피한잔 그리고 그림 바다보이는 갤러리 카페 〈아트바젤〉 발전소에 미술관?! 〈해누리미술관〉

△〈아트바젤〉은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카페다. 2011년 겨울에 문을 열고 회화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아트바젤〉은 왜곡마를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건물 3층에 자리해 있다. 카페의 절반이 바다가 보이는 창가 좌석이다. 덕분에 날이 좋으면 푸른 서해바다를, 비가 오면 또 그대로 운치 있는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다 문득, 카페 안으로 시선을 돌리면 벽면에 전시된 그림들이 눈에 들어온다. 고개만 돌리면 바다와 그림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것!

6월까지 시원문화동인회의 시화전이 열리며 7월과 8월에는 박진균 작가의 한국화가 전시될 예정이다.

커피와 음료도 훌륭하다. 커피는 매장에서 직접 볶아 내놓는다. 레몬에이드를 비롯한 각종 과일 음료도 생과일을 직접 짜거나 갈아 만든다.

△한편 왜곡마을과 달아 있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도 그림을 볼 수 있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전력문화홍보관 2층에 자리한 해누리 미술관이 그곳이다. 해누리 미술관은 지난 3월 개관과 함께 (사)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 회원



아트바젤



아트바젤



아미피에

전을 열었다. 당진 지역 작가들의 조각, 동·서양화, 디자인, 문인화,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당진미술협 회원들의 작품은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교체되어 전시될 예정이다.

당진시내 곳곳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 시민들 문화 공유하는 사랑방 역할 〈아미피에〉, 〈HNH 힐링카페〉, 〈정성가득 한방카페〉

△당진시장과 대덕동 먹자골목의 끝이 만나는 지점에 갤러리 카페 〈아미피에〉가 있다. 〈아미피에〉는 클래식한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이 아늑한 공간을 연출하는 카페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지역의 문화 공간 확대를 위해 지역신문인 〈당진시대〉에서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그로 인해 그동안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더불어 [세움어린이집 원아 작품전], 할머니들의 글공부 이야기를 다룬 [해누리미술관] 등 지역사회에 함께 나누고픈 전시회를 열어왔다.

△〈HNH 힐링카페〉 역시 〈아미피에〉와 더불어 전시 문화의 문턱을 더 낮춘 공간이다. 지역 작가나 문화를 즐기는 시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전시 공간을 대여하고 있다. 특별히 종교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작품이 아니라면 누구나 환영이란다. 지역 문화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전을 비롯해 지역 인사의 카카오스토리 전시를 열



HNH 힐링카페



정성가득한방카페

기도 했다. 6월 한 달간 당진풀잎문화센터 회원들의 캘리그래피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HNH 힐링카페)는 힐링콘서트, 바이올린 연주회,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고 있다. 그야말로 지역의 사랑방 같은 카페다. (HNH 힐링카페)는 시청 앞 대덕동에 위치했다.

△읍내동 당진1동사무소 맞은편에 자리한 〈정성가득 한방카페〉에도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전통 한방차를 내놓는 〈정성가득 한방카페〉에서는 현재 한국화가 서진석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동안 당진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왔다. 한편 〈정성가득 한방카페〉는 건강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이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준비 중인 곳으로 차를 비롯해 판매되는 먹을거리에 운영진의 마음 씀씀이가 엿보인다.



여기서 잠깐! 미술관과 갤러리, 갤러리 카페는 어떻게 다른 걸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들의 분류는 영리성으로 구분 된다. 미술관은 미술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 보존, 전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고로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나 자료를 판매하지 않는다. 반면 화랑으로 불리는 갤러리는 미술작품을 전시, 판매해 영리적 이익을 취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갤러리 카페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갤러리와 카페가 합쳐진 공간으로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카페를 일컫는다. 이밖에도 대안공간이라 불리는 비영리적인 전시 공간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당진문화를 이끄는 사람들 - (사)한국생활음악협회 당진지부

# ‘스웁’ 넘치는 아마추어들의 모임, 당진생활음악협회



## 거리문화만들어보자몽쳐,6년째 금요일음악회주최

많은 이가 프로를 자처하는 이때, 당당히 ‘아마추어’를 내세우는 이들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 아무렴 어떠냐’는 식이다. 그야말로 ‘스웁(swag)’이 넘친다. (사)한국생활음악협회 당진지부(이하 당진생활음악협회) 회원들의 이야기다.

당진생활음악협회는 9년 전, ‘거리에서 늘 음악이 울려 퍼지는 당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모여 결성되었다. 초기 회장단을 맡았던 김진식, 박근식 씨가 중심이 되어 30여 명의 회원이 의기투합했다. 지금은 지역 축제가 아니더라도 당진의 음악동아리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9년 전 만해도 상황은 달랐다. 음악이란 것이 공연

을 통해 꽃을 피우는 장르인지라, 아마추어 음악동아리들은 항상 무대에 목말랐다.

“당진생활음악협회 결성 전과 후의 가장 큰 변화는 ‘누구나 설 수 있는 무대’가 생겼다는 거죠. 특히 ‘지속적인 무대’라는 게 중요해요.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수면 위로 올려준 것, 그것이 우리 협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김형태 회장의 말이다. 당진생활음악협회는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금요일음악회를 연다. 금요일음악회는 당진을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도시, 문화를 즐길 줄 아는 도시로 만들었다. 물론 회원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매주 무

대에 서야 하니, 연습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연습이 실력을 키운 건 말할 것도 없다. 무대에 서고자 하는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도 계속되었다. 금요일음악회에는 당진생활음악협회 회원뿐 아니라 당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음악 동아리들이 참여한다.

김형태 회장은 “금요일음악회가 당진시민들에게 노래 한 곡 들으며 한 주의 피로를 씻어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회원들과 당진 생활음악인들에게는 스스로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생활음악협회에서는 금요일음악회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충남지역 생활음악협회의 연대를 통해 공연팀 교차출연도 진행하고 있다.

금요일음악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실력을 쌓

은 회원들은 순회공연을 시작했다. 소년소녀가장돕기 모금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당진복지관 투어 등을 통해 공연 활동에 여러 의미를 더했다.

당진생활음악협회는 숨어있는 실력자를 발굴해 무대에 서게 하고, 당진 거리 곳곳에서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지는 당진을 꿈꾼다. 충남지역 생활음악인들과 함께 충남 락 페스티벌을 당진에서 개최하는 것도 희망사항 중 하나다.

회원들의 직업은 공무원부터 중장비기사, 음악학원 강사, 자동차 정비원까지 다양하다. 그만큼 성격도 개성도 가지각색. 이같은 당진생활음악협회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가장 큰 자랑거리는 다름 아닌 ‘회합’이다.

“대부분 공연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무대

는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공연 기획일을 하기 때문에 더 잘 알죠. 주인공은 마지막’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원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정말 단 한명도요. 무대에 서는 것 자체를 즐기기 때문이죠. 내 욕심 따위 쟁길 생각은 애초에 없으니 화합이 잘 되지 않을 수 없죠.”

당진생활음악협회는 지난 5월, 오랜 휴식기를 끝내고 다시 금요일음악회의 문을 열었다. 금요일마다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그들의 열정이 무대를 장식한다. 우리 함께 음악을 나누는 이 밤, 즐겁지 아니한가. 즐길 줄 아는 당신이 진정 챔피언이다.

당진생활음악협회 임원 : △지부장: 김형태 △부지부장: 심문원, 박기성 △사무국장: 차현미 △감사: 김희영 △공공기획부장: 손창호

## 별별동지 당진하모니

# “문화재단 덕분에 동아리 활동하죠”

“열심히 배워서 미래의 손자에게 들려줄 꿈에 부풀어 있어요.”(이연숙 씨)  
 “선생님께 인생 이야기 듣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배우는 게 참 많아요.”(김인수 씨)  
 “스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 같다고 할까요? 격이 높아지는 느낌이에요.”(우정옥 씨)  
 “젊어지고 있어요. 내 나이로 안보이죠?”(김길대 씨)



배우는 즐거움이 있고 살던 꿈을 만들고, 삶 자체도 업그레이드 시켰다. 심지어 나이를 거꾸로 먹는 기분이다. 당진하모니 회원들의 이야기다. 평균연령 60대, 가장 연장자인 김길대 씨는 75세다. 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하모니카다. 지난해

3월 당진문화예술학교 하모니카반 수강생으로 모여 1년동안 백기에 강사에게 하모니카를 배웠다. 그리고 11월, 수업 성과발표회 ‘돋움’을 준비하면서 동아리 결성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작년 수강생 대부분이 함께 동아리 활

동을 하며 올해로 2년째 수업을 함께 듣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수업을 마친 뒤에 모두 남아 1시간씩 더 연습시간을 갖는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눈치 보지 않고 공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진하모니카 당진문화재단의 별별동지

선정단체이기 때문이다. 별별동지란 당진문화재단의 예술단체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11개 단체가 선정되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 받고 있다.

“성인들의 동아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모임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몇몇 동아리들은 지하공간에 동아리방을 꾸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당진문화재단 덕분에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원종순 회장)

### 60대가 하모니카를 배우는 자세

하모니카 수업은 우선 새로운 곡을 배울 때마다 백기에 강사가 게이름으로 곡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회원들은 가사로 곡을 익힌 뒤에는 백기에 강사가 게이름으로 불러준 것을 녹음해 반복해서 들으며 외운다. 회원들 모두가 게이름을 완벽히 외워야 하모니카 연주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강종선 반장이 대표로 녹음한 음성파일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회원들이 각자 휴대폰에 다운받아 암기를 한다. 회원 평균연령이 60대이지만 누구하나 열외는 없다. 지난해 ‘돋움’ 공연곡이었던 ‘you raise me up’은 원 회장이 가사를 해석하고 영어발음을 한글로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곡을 외웠다. 그만큼 회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젊은이들의 그것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다.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른다.

연습시간에도 함께 하는 백기에 강사는 수업 중간 옥타브 주법을 가르치며 말

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즐거워야 해요. 옥타브 주법을 해야 하는데 어딘가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냥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안하는 게 낫죠. 우리는 즐겁기 위해 하모니카를 배우는 거니까요.”

회원들이 하모니카를 대하는 자세와 즐거움이 ‘스승’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걸 기쁘게 하는 대목이다. 백 강사는 “어느 도시, 어느 수강반보다도 회원들이 열정적”이라며 “노력도 많이 하고 회원 간에 소통도 잘 된다”고 말했다.

당진하모니카는 7월, 그들만의 첫 공연을 앞두고 있다. 별별동지 선정 덕에 연습량이 늘어 공연에도 욕심을 내어 본 것이다.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펼쳐질 아름다운 하모니카 공연이 기대된다. 이대로라면 하모니카 앙상블팀을 꾸려 봉사활동도 하고 단독연주회도 해보고 싶다는 그들의 꿈이 머지않아 실현되지 않을까.

당진하모니카 회원: 회장 원종순, 총무 이영숙, 김길대, 서정효, 김혜련, 안정순, 우정옥, 박선자, 김홍자, 이정자, 김선일, 강종선, 김인수

\* 별별동지란? 예술단체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으로 당진 지역 내 예술단체 및 문화동아리에게 안정적인 작업 또는 연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초 공모를 통해 지원 단체를 선정 후 우수단체의 성과발표회를 지원한다. 성과발표회를 통해 단체의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도 확보한다.





# '2017당진문화진흥기금'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당진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장르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공모를 통해 당진문화진흥기금 대상자를 선정하며,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기금지원 방안 마련과 상세한 정보제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6개분야 59개 단체, 65개 사업에 대해 기금을 지원했다.

## ■ 선정결과 (분야별 접수신청 순)

연번	분야	신청단체명	사업명
합계	6개 분야	59개 단체	65개 사업
소계	공연예술	14개 단체	15개 사업
1	공연예술	당진 오카리나 앙상블	제5회 당진 오카리나 정기연주회
2	공연예술	(사)한국음악협회당진지부	제6회 심훈콩쿠르
3	공연예술	보덕사 관음합창단	제10회 보덕사 호수음악제
4	공연예술	해오름 모듬북 (난타)	삼교호 관광지 (두드림과 흥의 만남)
5	공연예술	온누리 합창단	제31회 온누리 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6	공연예술	온누리 합창단	제3회 당진시 가족-동료 중창대회 개최
7	공연예술	S.P.R. 음악 동호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10회 소들 한 여름밤의 콘서트"
8	공연예술	당진원앙클럽	제7회 전국 통기타 중남 페스티벌
9	공연예술	(사)한국생활음악협회 당진지부	금요음악회
10	공연예술	당진캠버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11	공연예술	늘푸른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12	공연예술	(사)연극협회 당진지부	2017년 한국연극협회 당진지부 정기공연
13	공연예술	극단당진	소극장 페스티벌 및 당진학생연극제
14	공연예술	당진시 교향악단	당진시교향악단 제11회 정기연주회
15	공연예술	당진스트링앙상블	당진스트링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소계	종합예술	5개 단체	5개 사업
16	종합예술	한국시낭송가협회당진지회	사랑의 향기 가득한 시낭송회
17	종합예술	당진예총	제7회 당진예술지 발간
18	종합예술	해나루 시민학교	해나루시민학교 시화전
19	종합예술	당진시중장애인지원센터	당진장애인예술제(전시 및 음악회)
20	종합예술	스마일당진	효잔치, 노래, 댄스, 미술치료, 동화구연 등
소계	문학	5개 단체	5개 사업
21	문학	당진시인협회	당진시인협회 동인지 발간
22	문학	연호시문학회	연호시문학회 제17집 출판 및 시서전
23	문학	호수시문학회	호수시 제25집 동인지 발간
24	문학	나루문학회	나루문학 제37집 동인지 발간
25	문학	(사)심훈상록수기념사업회	상록수 제14호 발간
소계	미술	17개 단체	21개 사업
26	미술	당진공예가협회	당진공예가협회 정기전시회
27	미술	남송서도회	제16회 남송서도회원전
28	미술	남송서도회	제51회 국제문화미술(서예)대전(공모전)
29	미술	당진 수채화 작가회	"찾아가는 작은작품 미술전시회" 및 제10회 수채화작가회 정기전
30	미술	청목회	제5회 청목회전
31	미술	(사)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	2017 전국당진기발미술제
32	미술	터치바이티지회	당진의 사계절
33	미술	당진인물작가회	당진사람들전
34	미술	미소연현대도예가회	2017 미소연 현대도예가회전
35	미술	(사)한국사천작가협회 당진지부	제13회 당진전국사천공모전 및 (사)한국사천작가협회 당진지부 회원전
36	미술	당진구상작가회	아름다운 동행전 (장애인과 함께하는)구상작가전
37	미술	당진구상작가회	제37회 학동인전
38	미술	학동인회	행복한동행(목의향연)전
39	미술	상록목향회	서예 전시회
40	미술	당진시 서예인회	열 번째 먹그림 사랑전
41	미술	먹그림사랑회	제14회 문인화 연구회전
42	미술	문인화연구회	제8회 문인화 회화대회
43	미술	문인화연구회	제34회 회원사천전시회
44	미술	당진사진동우회	제2회 스마트폰 사진공모전
45	미술	당진사진동우회	제4회 손수채 회원전
46	미술	손수채	12개 사업
소계	전통예술	11개 단체	전통민속(전통제례문화보존 및 제례흥기전승)
47	전통예술	오산전생경모회	당진국악협회 정기발표회 "국악한마당"
48	전통예술	(사)한국국악협회당진지부	중남국악제
49	전통예술	(사)한국국악협회당진지부	무형문화재 제38호 경서도창악회
50	전통예술	경서도창악회 중남지회	중남지회 제8회 정기발표회
51	전통예술	아리랑 봉사단	당실 병실 웃음을 나누는 질버퍼워
52	전통예술	(사)당진향토문화연구소	향토사 연구지 내포문화 제29집 발간
53	전통예술	(사)한국무용지도자협회 당진지부	전통무용공연 "단아함... 그리고 열정"
54	전통예술	(사)한국민속예술협회 당진지부	단오절 민속축제
55	전통예술	당진농악대	당진 전통농악 정기 시연
56	전통예술	당진주부연합해나루농악대	찾아가는 농악교실
57	전통예술	가학리 농악대	농악공연
58	전통예술	당진해오름농악보존회	충청무다리농악 계승발전
소계	청소년 문예활동	5개 단체	5개 사업
59	청소년 문예활동	당진시예술소년소녀합창단	당진시예술소년합창단 정기음악회
60	청소년 문예활동	(사)한국문인협회 당진지부	제8회 당진시 청소년문학상
61	청소년 문예활동	심훈상록문화재단집행위원회	제4회 심훈 중앙대 청소년 문화캠프
62	청소년 문예활동	당진소년소녀합창단	당진소년소녀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63	청소년 문예활동	(사)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	제12회 찾아가는 청소년 열린음악회
소계	공연예술(신진)	2개 단체	2개 사업
64	공연예술(신진)	당진 청소년·청년 극단예능	"레미제라블"
65	공연예술(신진)	당진한사랑음악 적십자봉사회	한사랑음악회 (연간12회)







올여름 문화재단 공모사업

2017 당진 올해의 문학인 출판사업

지역 문학인 출판물 발간, 출판기념회 개최



당진문화재단이 2017 당진 올해의 문학인 출판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 출판사업은 당진문화재단의 예술인장착지원 사업 중 하나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심의를 통과한 작가의 출판물 발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문학인과의 교류 및 발전에 기여하는 작품집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공모대상은 당진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두고 문학 활동을 5년 이

상한 문학인으로서 매년 3명 이내를 선정해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공모분야는 시, 수필 등이다.

당진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출판사업을 추진해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재단은 심사위원들에게 공모자의 작품에 대한 1차 심사를 30일간 채택심사로 실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꾀하고 있다. 이후 5년 내 활동 실적 및 응모작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2016년에는 정재석 작가, 2015년에는 심장섭 작가와 정기원 작가, 2014년에는 박미영 작가, 이종미 작가가 선정되었다.

자세한 세부 일정은 6월 중 당진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 가능 하다.

2017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사립미술관갤러리 등 지원 6월2일까지 공모, 1억4천만원 지원

당진문화재단이 2017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 시행되는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내 민간이 등록 운영하는 시각예술 전시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전시 활동의 거점 확충과 지속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사립미술관, 대안전시공간, 갤러리 등으로 지역 내 민간이 등록해 운영하는 시각예술전시공간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총 지원금 1억4천 만원에 한해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프로그램의 규모나 사업계획안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내용과 형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전시공간 자체 시설에 대한 임차료나 시설개보수,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상근 인력 운용비, 인건비성 사례비,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된다.

공모기간은 6월 2일까지이며 관련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당진문화재단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사업팀(041-350-2914)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문화재단은 공모 신청 접수 완료 후 6월 7일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여름, 이 공연 1. 프랑스 국립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60년 전통 OPS 첫 내한공연을 당진에서 만난다!

프랑스의 섬세함과 독일의 견고함을 모두 지닌 악단 한국 대표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협연

프랑스 국립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OPS)의 첫 내한 공연을 당진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OPS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베를리오즈, 브람스, 생상스, 말러 바그너, 슈트라우스, 레거, 당디, 볼레즈, 루토슬라브스키, 펜데레츠키 등 유명 작곡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지휘한 오케스트라로 유명하다.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 위치한 도시이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된 도시이기도 하다. OPS는 스트라스부르에서 1885년 시립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유서 깊은 악단이다. 이후 1971년부터 프랑스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편되어 현재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하였다. 스트라스부르의 지리적 특성상 독일과 프랑스 영향을 고르게 받았다. 두 국가의 반복된 전쟁 속에서 소속이 바뀌는 아픈 역사의 시간을 거쳐 왔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프랑스의 섬세함과 독일의 견고함을 모두 흡수해 그 존재와 명성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

프랑스 언론과 관객의 무한 신뢰, 지휘자 마르코 레토나

1972년부터 10년간 세계적인 지휘자 알랭 롱바르가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 활동했고, 롱바르의 지휘 아래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마르코 레토나의 지휘 하에 프랑스 최고의 악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마르코 레토나는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2012년부터 OPS의 음악감독 겸 지휘를 맡고 있다. 그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카 델라 스칼라,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일류 오케스트라를 거치며 유럽에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며 줄곧 유럽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연 매 회마다 전석 매진은 물론 프랑스 언론으로부터 '카리얀이 살아 돌아왔다'는 극찬을 듣는 등 언론과 관객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

한국 1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협연

이번 공연에 한국 1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협연자로 나선다. 강동석은 12살 때 동아콩쿠르에



\* 공연상세정보

일시 6월 29일(목) 저녁 7시30분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연령 초등학생이상 입장가능

관람료 V석 8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할인 문화회원, 예술인패스 30%, 청소년,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문의 041-350-

서 대상을 수상해 천재성을 입증하였고, 뉴욕 줄리아드 음악학교, 커티스 음악원에서 이반 갈라미언으로부터 사사받으며 기량을 갈고 닦은 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재단 콩쿠르, 워싱턴의 메리웨더 포스트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인 그가 오랜만에 해외 오케스트

라와 국내에서 협연을 펼치는 무대가 기대된다.

슬로베니아 출신 지휘자 마르코 레토나와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은 이번 무대에서 베를리오즈의 <르 코르세르 le corsaire>, <환상 교향곡 Op. 14>와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D major Op. 35>을 선 보일 예정이다.

올여름, 이 공연 2

불멸의 가수 배호, 그의 음악이 흐르는 뮤지컬

7월 15일, 뮤지컬 <천변카바레> 공연



한국 창작 뮤지컬계의 대표적인 쇼뮤지컬 <천변카바레>가 당진을 찾는다.

7월 15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공연 예정인 <천변카바레>는 지난해 타계 45주기를 맞은 불멸의 가객 배호의 음악을 중심으로 1960~70년대 급격한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가는 서울의 이면을, 시골에서 상경해 노동자, 웨이터, 모창 가수로 변신하는 주인공 춘식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낸 뮤지컬이다. 1970년 청계천변에 있는 천변카바레에서 주인공들이 여가하는 사랑과 배신, 웃음과 눈물의 드라마가 지금 들어도 세련된 클럽 음악과 함께 한편의 쇼로 펼쳐진다.

2012년 공연 당시 언론은 <천변카바레>에 대해 "1960~70년대 대중음악과 밤문화 클럽 문화를 실제로 체험하는 듯한 느낌", "커피잔", "키다리 미스타김"을 들으며 어깨를 들썩이고 '두메산골', '서울야곡'을 들을 때는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리뷰했다.

2010년 초연 전석 매진을 기록한 <천변카바레>는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 선정 창작뮤지컬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당진 문예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발행인 편지

# 문화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당진문화재단장 관 장

‘권리’라는 것이 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어떤 일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라고도 서술하고 있다. 물론 법적인 개념 외에도 윤리적 기타 여러가지 뜻으로도 쓰인다. 우리는 여러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헌법적으로 규정한 국민의 권리도 있고, 인간이라면 당연한 권리라고 우리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권리도 있다.

그런데 그런 권리 중에 문화권리는 빠져있는 것 같다. 문화는 우리 삶 그 자체이며, 인간 사회의 생산물인데 ‘문화가 권리일까?’ 생각하는 것 같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라면 갖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1948년 12월 국제연합(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인간의 주요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몇 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27조는 흥미로운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1항의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와 2항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다. 즉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이 소유해야 할 하나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산하의 기구인 유네스코

(UNESCO)도 <세계문화보고서>에서 “국가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권의 신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의의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문화예술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였다. 1976년 제19차 총회에서는 개인이 문화창조와 그 혜택에 자유롭게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화활동의 방법과 수단을 민주화한다는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국민이 문화를 누려야 하는 것은 기본권이다. 국가정책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사항이다. 때문에 국가는 문화예술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사회구성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곧 문화예술의 향유는 의료·주거·교육 등과 같이 사회적·경제적·교육적인 이유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문화정책의 기본은 문화예술의 활동과 향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예술인 칼럼

## 당진시 문화예술의 비상을 꿈꾸며



임성실  
당진예총 회장

의 문화예술을 이끌고 있다. 이런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당진시민들과 함께 노력을 한다면 발전의 속도는 가속화 될 것을 판단된다. 아울러 당진시민들 중에는 숨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에 다양한 예술문화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참여시켜 머리를 맞대고 문화예술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 또한 그런 것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인슈타인은 “Imagination is impotent more than knowledge.”(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 상상력은 예술이고 문화, 즉 예술문화이다. 21세기는 예술문

문화예술의 향유층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으로 가야한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일방적일 때 소통은 없는 것이다. 혼자 독주해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속담이 있다. 결국 함께 가야하고 함께 공유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표현하면 미술이 되고 소리와 악기를 통해 만들어 내면 음악이 된다. 상상력을 영상으로 표현한 것이 애니메이션이 되고 영화가 된다. 현대는 물질과 지식은 넘쳐나고 있기에 정신적으로 무엇인가 부족하고 허전하다. 그걸 해소시켜주는 것이 결국 문화예술이다. 문

‘멀리가려면 같이 가라’,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당진만의 독특함 발굴에 모든 지혜한데 모아야

화의 시대이다. 지식은 지구가 생겨난 이래 나온 지식은 현재 76일마다 업그레이드된다고 한다. 앞으로는 지식의 생성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진다고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매일 매일 지식이 업그레이드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76일전에 알고 있는 지식들 중에는 아무 쓸모없는 지식들이 되어 쓰레기가 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은 반대로 쌓이고 쌓여서 발전된 문화예술의 토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당진만의 문화예술은 고유한 자라자 독특함이 될 것이다. 당진에는 많은 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가 있으며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런

문화예술은 시대를 앞서간다고 한다. 물질문명의 세계에서는 물질만으로 살 수 없으며,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무엇인가 부족함을 문화예술이 채워 주어야 완성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문화예술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상생해나갈 때 파괴력은 더 커질 것이다. 당진시민의 독특함을 발굴하고 지속시키고 성장시켜나갈 지혜를 한데 모아 당진시민들의 가슴에 피어있는 문화예술의 한 송이 한 송이 꽃들이 모이고 모여 당진시 문화예술의 꽃밭이 되는 그날을 위해 다 함께 더붙어 노력해야겠다.

당진시는 도시화로 빠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세대 간의 격차와 계층 간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의 패러다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당진시의 도시화에 따른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수권 추구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80년대 70세, 2000년대 80세, 2020년 100세가 된다고 한다. 가족형태 역시 80년대 3인 가족, 2000년 2인 가족, 2020년 1인 가족이 증가한다.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고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과학문명은 인공지능시대로 변화되고 있어 그만큼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당진시의 예술문화가 언제까지 과거의 틀 안에서 안주하고 만족할 수 없다고 본다.

당진시의 독특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과 변화는 어느 한사람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문화예술도 전문가 시대 되었다. 당진시에는 당진문화원, 당진문화재단, 당진예총이 당진

문화가 산책

## 봉산탈춤과 강남스타일의 미장센



이동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저 있지만, 엉덩이춤은 ‘미알 마당’에서 최근한 진수를 보여준다.

엉덩이춤사위는 고성오광대, 양주 별산대 놀이, 강강술래, 경기도 살풀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씨이의 ‘강남스타일’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중가요의 거의 모든 댄스 뮤직에 엉덩이춤이 빠지지 않는다. 수많은 아티스트가 흥에 겨워 자신의 엉덩이를 흔들며 추는 춤이니 특허를 낼 수도, 의장등록을 할 수도 없다. 그러다보니 급기야 제목이 ‘엉덩이 흔들어봐라’는 댄스곡도 한 때 유행하지 않았던가.

씨이의 엉덩이춤은 ‘강남스타일’ 전편에서 격앙되게 드러난다. 얼핏 보면 두 주먹을 앞으로 모아 흔들어

통불통한 사나이’가 유럽인들의 입에서 제창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이 한국말을 이해하고 부르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아무튼 걸그룹의 엉덩이춤이나 남자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와는 다른 미장센이다.

봉산탈춤으로 돌아가서 미알할미의 엉덩이춤을 보면, 풍물소리에 맞춘 단순한 동작, 다소 느린 속도감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시대정신이나 역사성이 담겨있는 봉산탈춤을 상업적인 ‘강남스타일’과 비교하지는 것은 아닌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도감만 다를 뿐, 엉덩이춤을 구사하는 미장센은 매우 닮아 있다.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순간순

뒤쪽 허리 아래 허벅다리 위, 살이 두두룩한 부분을 엉덩이라고 한다. 그걸 들쭉거리면서 신이 나서 추는 춤을 엉덩이춤이라고 하는데, 동서고금을 아울러 인류의 춤 문화 중 엉덩이춤이 가장 많이 성행해왔다. 봉산 탈춤의 일곱째 마당에서 미알할미가 바로 그 춤을 춘다. 부채와 방울을 양손에 들고 궁둥이를 좌우로 흔들며 대거나 제자리를 맴돌기도 하고 누워있는 영감위로 지나가기도 한다.

1) 봉산 탈춤은 산대도감극의 하나로 황해도 일대의 주요 장터인 평산, 봉산 등지에서 성행하다가 황해도 전 지역에 퍼진 민속극이다. 봉산은 농산물과 수공업 생산물의 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한양과 의주를 잇는 교통 요지여서 경제적 여건, 관객 동원 등 공연 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이었기에 이 작품이 널리 흥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는 ‘양반춤 마당’이 많이 알려

동서고금 인류의 춤 중 가장 성행한 ‘엉덩이춤’ ‘강남스타일’ 닮은꼴 봉산탈춤의 재성형 영원

대는 말춤이 특징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엉덩이춤이 아니라 골반과 궁둥이까지 격렬하게 흔들어댄다. 처음부터 끝까지 엉덩이춤만 흔들면 보는 이가 식상하기 쉬운 것이다. 관객의 시선을 슬쩍 두 주먹이나 다른 동작으로 분산시키고 흥은 여전히 엉덩이에 담아 강약을 주는 스킬!

이런 요소요소가 ‘강남스타일’ 공연의 미장센에 숨어 있기에 로마 포폴로 광장에서도 파리 에펠탑 앞에서도 관객을 열광하게 했다. 게다가 엉덩이춤과 조화를 이루기 힘들 것 같은 노랫말, ‘근육보다는 사상이 울

간 관객에게 세계 어필하는 엉덩이춤이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미알할미의 엉덩이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시간이 찾아왔으면 한다. ‘강남스타일’보다 더 통속적이고 더 직설적인 스토리에 살살 흔들 땀 살살 흔들고 강렬할 땀 강렬해서 숯불처럼 은근한 맛이 살아 있는 엉덩이춤!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것 같다. 누가 관객이고 누가 춤꾼인지 구분 없이 어우러지는 춤마당이 한 판 벌어지는 걸 상상하면서 고사 상 돼지머리처럼 흐뭇해져 본다.

1)산대도감극: 산대극, 산대놀이, 산대희 등 여러 명칭으로 혼용되는 한국의 대표적 민속극. 산대와 연극의 개념을 합친 것.



# 당진문화재단뉴스

## 우리가족 연극여행 '극과 극' 참가자 모집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우리가족 연극여행 '극과 극' 참가자를 모집한다.

우리가족 연극여행 '극과 극'은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30분동안 당진문화예술학교 무용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종합예술인 연극을 통해 참가자 스스로 상상력과 자기표현 방식을 기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더욱 확장된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기획됐다. 5월10일 모집이 종료된 1기 그림자극은 오는 7월4일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2기 연극은 6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당진 거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부모와 7~10세 아동의 동반참여를 권장한다. 기수마다 30명씩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이번 교육의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문화재단 예술교육팀 041-350-2931로 문의하면 된다.

## 별별동지 11개 단체 선정, 지원

당진문화재단이 지역 예술단체를 위해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별별동지' 예술단체 창작스튜디오 지원 사업을 공모해 11개 단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11개 단체는 당진시예술소년소녀합창단, 호수시문학회, 당진하모니, 당진청소년오케스트라, 당진스트링앙상블, 목관앙상블 안단체, 어린이책시민연대, 줌타타타동아리, 아우름, 라온, 희희낙락이다. 당진문화재단은 2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적으로 이들에게 창작스튜디오 공간과 장비, 성과발표회 비용과 장소 등을 지원한다.

## '천원의 행복'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당진시민이라면 누구나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마다 '천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당진문화재단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이 이를 지원한다. 2월에는 '텨 그라운드 탭댄스' 3월에는 '비루투오조 바이올린', 4월에는 '장일범의 해설이 함께하는 피아니스트 양성원의

병정과 열정사이' 5월에는 '이광조 리사이틀'가 공연되었다. 오는 6월의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은 남미음악그룹 가우사이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6월 28일 수요일 저녁 7시30분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특설무대에서 입장료 1천원으로 만날 수 있다.

## 6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초여름 밤, 남미음악에 빠져보세요 에콰도르 음악 그룹 '가우사이' 특별공연



당진문예의전당 6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남미음악을 만나게 될 예정이다. 6월 28일(수) 저녁 7시30분에 열리는 공연에는 에콰도르 음악 그룹 가우사이(KAWSAY)가 무대에 오른다.

가우사이는 1998년 서울 정동극장 전속 활동을 통해

국내 활동을 시작한 남미음악 전문 공연단체이다. 현재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일의 남미음악 전문 예술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1983년 지금 멤버의 아버지들에 의해 결성되었고, 이후 에콰도르를 비롯한 남미각국의 문화축제에 참가하며 명성을 떨치면서 지금은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음악그룹으로 성장했다.

각종 축제와 음악회 등을 통한 공연과 더불어 TV조선 드라마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 KBS 1TV 리얼 한국 정착기 '이웃집 찰스' 등에도 출연했다. 2016년 개봉한 남미음악영화 '엘콘도르 빠샤'에서는 주연을 맡기도 했다. 지난 여수세계박람회에서는 최우수 공연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 공연단 최초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문화예술회관 초청콘서트 한국 전통음악과의 콜라보레이션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책과 음악, 이야기가 있는 북콘서트



2017년 북콘서트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인문학이 당진시립중앙도서관에서 당진문화재단과 당진시립도서관의 공동 주최, 주관으로 지난 4월 12일 열렸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영화 <식스센스>, <진주만> 등을 번역한 이미도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당진스트링앙상블도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였다.

5월 21일에는 김용택 시인의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자연은 인생을 투영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북콘서트에서는 국악 실내악 희희낙락의 특별공연을 펼쳐졌다.

## 3월에 찾아온 로맨틱 피아니즘 위켄드



2017 봄 시즌 공연으로 준비한 'Romantic Pianism Weeken'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3월 10일 피아니스트 윤환과 신지호의 공연에 이어 11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유키 구라모토의 공연이 열렸다. 3월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기획된 공연에는 연인, 부부를 비롯한 당진시민들이 찾아와 그 어느때보다 달콤한 피아노 공연을 즐겼다.

## 기획전시 세계탈 문화전 'Masks' 개최



당진문예의전당 기획전시 세계탈 문화전 'Masks'가 지난 4월29일부터 5월16일까지 휴일없이 총 18일간 전시됐다. 인류의 보편문화인 탈을 주제로 가정의 달 및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세계탈 전시회에는 직접 탈을 써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 순성면 갈산리에 찾아간 문화선물



당진문화재단은 지난 4월 15일 찾아가는 문화소외지역을 방문해 공연을 열었다. 찾아가는 문화선물 공연은 순성면 갈산리 일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무대에는 박일준, 윤중식 등의 초청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 당진문화예술학교**

발행처 (제당진문화재단 | 발행인 김홍장(당진문화재단 이사장) | 편집총괄 문옥배(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충남 당진시 무수동2길 25-21(당진문예의전당) T.(041)350-2910-6 F.(041)354-6605/352-6896  
www.dangjinart.kr / 취재 편집 인쇄 (주)당진시대신문사

※본 책지에 실린 내용과 사진은 당진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